



2019. 8. 30
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

미국-이란 대립과 중동에너지안보

장지향

아산정책연구원
선임연구위원 / 중동센터장

jhjang@asaninst.org

1. 미국 매파-이란 강경파의 대립과 역내 긴장: 일촉즉발 vs. 탐색전

- 2018년 5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이란핵협정 탈퇴와 고강도 제재 부활.
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쟁불사 선포.
- 미국-이란 대립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탐색전으로 상대의 한계를 재보며 불확실성 줄이고 절충점 찾는 과정.
- 민주주의가 열악한 나라의 지도부에게도 전쟁은 피하는 게 권력유지에 이로움.
-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 틀 안에서 내년 대선까지 복음주의자 지지층 의식하며 대이란 단호함 유지.
- 이란 강경파도 민생고에 따른 국내여론 악화로 전쟁 피하고 저항경제 강조.
- 이스라엘, 사우디, UAE는 이란의 고통 원하나 전쟁의 대가를 치를 만큼은 아님.

2. 중동 비자유주의 세력의 부상과 미국-유럽의 분열

- 아사드 세습독재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내전에서 승리.
-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를 발판으로 레바논, 이라크, 예멘, 가자지구로 진출, 역내 시아파 헤게모니 장악.
- 러시아는 전후 협상을 주도하며 피스메이커로 변신.
- 친서방 블록의 터키와 카타르도 이란과 러시아 주도의 비자유주의 중동질서 합류.
-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도 유럽은 핵협정 지지 표명.
- 2018년 12월 미국의 시리아 철군 계획 발표 후 공백 분담 요청에 유럽 3국 거절.
- 트럼프 정부의 이-팔 중동평화안에 대해 유럽은 이미 반대 입장 표명.

3. 높은 기대감, 낮은 역량: 사우디 체제의 취약성

- 2017년 급작스레 지명된 MbS 왕세자는 **자유로운 개혁가 이미지**로 우방국에 어필.
- 이란의 역내 패권국 부상, 전사자 속출, 카타르 단교와 아랍 산유왕정 내분, 미국 세일업계의 에너지시장 장악, 보조금 삭감과 과세 실시의 **전례 없는 변화에 국제규범 공유 선언과 개혁질주로 화답.**
- 그러나 카슈끄지 사건 이후 왕세자의 **과도한 자신감이 부른 비상식적 결말**에 우방국마저 분노하고 MbS 체제의 **정당성은 뿌리 채 흔들림.**
- 국내적으로도 2030 개혁개방의 **실질적 성과는 미흡하나 청년과 여성은 보조금 삭감과 납세까지 감수하며 전폭 지지.**

4. 국내 저항, 국외 압박: 이란의 현상유지 추구

- 이란 강경파의 **패권 추구 정책은 2018년 중반 이후 위기를 맞기도 함.**
- 강경보수 연합의 국내 지지층마저 민생 파탄에 반발**하며 시위조직. 여론은 미국과 함께 이란체제의 **부정부패와 역내 내전 지원** 맹비난.
- 제한적 선거가 이뤄지는 이란에서 체제 수호세력은 **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내정 단속에 치중하려 했으나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숨통 트임.**
- 이란 강경파는 미 대선 전까지 **저항경제로 버텨볼 계획**이며 미국과 탐색전을 긴 호흡으로 이어가고 있음.